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연구원 원장 강호입니다.

학계, 금융업계, 금융당국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증권업과 보험업의 경쟁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금융학회 김홍범 학회장님과

자본시장연구원 신인석 원장님,

격려사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님,

기조연설로 오늘 주제를 이끌어주실

신제윤 금융위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사회를 맡아주신

선우석호 교수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IMF는 2015년 경제전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의 여진(legacies),
불투명한 미래(cloudy future),
지속성장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상황에도
가장 적확하게 들어맞는 단어들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처럼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혀 다른 환경이 전개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저금리·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고
그 뒤에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지속성장을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짐작(斟酌)’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짐작의 한자풀이는 ‘술 짐’, ‘술따를 작’입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토기 잔에
술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술을 따르던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조심조심보다는
잔을 투명하게 만드는 혁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가
보험업과 증권업의 지속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기된
정책방향이나 추진과제에 대한
다양한 고견은
앞으로 관련 연구를 추진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